

인사이트 브리핑

유럽 주요 연구혁신 단체 European R&I Associations



2026년 2월

유럽 주요 연구혁신 단체

<26.02.25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□ 유럽 주요 연구혁신 단체 개요

- EU 연구·교육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 주요 이해관계자 조직으로 다수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체 형태로 운영
 - 이들 단체는 호라이즌 유럽, Erasmus+, 2028~2034년 차기 다년재정계획(MFF), 유럽단일연구공간법(ERA Act) 등 유럽 주요 의제에 대해 입장문, 권고안, 성명 등을 발표하는 활동을 수행
 - 연구기관 중심 단체의 경우, 연구 환경 개선과 연구 정책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함
 - 또한 EU 주요 펀딩 프로그램 및 관련 정책 개발 과정에서 집행위 등으로부터 자문·지원 요청을 받는 등 상당한 정책 영향력을 보유
 - 다음 대표적 단체들은 EU 주요 정책결정 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벨기에에 사무국을 두고, EU 연구정책·고등교육에 대한 정책 대응·협의 기능 수행

1] CESAER (유럽 선진 공학교육·연구대학 협의회)

CESAER

- 개요
 - 1990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협회로, 총회, 이사회, 회장단, 사무국, 태스크포스, 워킹그룹 체계로 운영
 - 재정은 회원 대학 분담금 중심으로 운영되며, '24년 기준 연회비는 13,614 유로, 연간 예산 약 76만 유로
 - 유럽·인접국에서 총 56개 과학기술 대학이 회원으로 참여. KU 루벤(벨기에), ETH 취리히(스위스), 델프트 공대(네덜란드), RWTH 아헨공대(독일) 등
- 주요 활동
 - 유럽 연구·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FP10, MSCA, Erasmus+, EU 정책, AI·사이버 보안 분야 등에 대한 입장문, 성명문, 제안서 등을 발표
 - 회원 대학들의 매우 높은 HE 성공률과 EU 펀딩 프로그램 및 관련 정책 개발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는 등 EU 정책 형성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



2 Coimbra Group (코임브라 그룹)

○ 개요

- 1987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집행위원회, 총장 자문그룹, 행정·재정위원회, 사무국, 워킹그룹 체계로 운영
- 재정은 회원 대학 분담금 중심으로 운영되며, '25년 기준 연회비 15,971 유로, 연간 예산 약 69만 유로
- 유럽 22개국 42개 연구·교육에서의 주요 종합대학이 회원으로 참여. 볼로냐 대학(이탈리아), 하이델베르크 대학(독일), 살라망카 대학(스페인), 루벵 가톨릭대학(벨기에),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(아일랜드) 등

○ 주요 활동

- Erasmus+, ERA Act, 차기 MFF, 유럽 학위, 호라이즌 유럽 등 EU 고등 교육·연구 정책에 대한 성명서, 입장문 등을 제출
- 회원 대학의 EU 프로그램 참여율이 H2020(14.4%) 대비 HE(21%, 최근 집계 기준)에서 확대*, 특히 필라2와 MSCA에서 두각을 나타냄. 또한 Erasmus+ 프로그램의 16% 이상이 회원 대학과 연계되는 등 상당한 참여 비중을 보임

3 EARTO (유럽연구기술조직협회)



○ 개요

- 1999년 설립된 비영리 유럽 연구기술조직(RTO) 연합으로, 총회, 이사회, 운영위원회, 정책·기술 워킹그룹, 태스크포스 등 체계로 운영
- 회원기관 규모에 따라 연회비는 차등 부과(약 900~40,000유로 범위)
- 32개국 350개 이상 응용연구·기술조직(RTO)이 참여, 프라운호퍼(독일), CEA(프랑스), TNO(네덜란드) 등, 한국 NST도 국제회원으로 활동

○ 주요 활동

- RTO를 EU 협력형 연구개발혁신 핵심 주체로 포지셔닝하고, 유럽 연구 혁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RTO·산업계의 기여를 강화하는 활동 수행
- 호라이즌 유럽, FP10, ERA 등 EU 연구혁신 프로그램 입장문과 정책 권고안을 제출하며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, EU 기관에 정책 자문 제공



4 EUA (유럽대학연합)

○ 개요

- 2001년 유럽대학협회와 유럽연합총장협의회의 합병을 통해 출범한 비영리 단체로, 이사회, 평의회, 총회, 사무국 및 분야별 전문가 그룹 체계로 운영
- 재정은 대부분 회원 연회비 중심(2,801~6,442 유로 차등 책정)으로 운영되며, '24년 기준 총 예산은 약 540만 유로
- 48개국 900여 개 대학과 국가 차원 대학 대표기관이 참여하며, 회원국뿐 아니라 영국·스위스 등 비EU 국가 대학도 포함. 옥스퍼드대학교(영국), 소르본 대학(프랑스), 하이델베르크 대학(독일), 바르샤바 대학(폴란드) 등

○ 주요 활동

- 교육, 연구혁신, 대학 거버넌스 등 대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EU·국가 정책을 위주로, 차기 재정계획, 호라이즌 유럽, FP10, 과학분야 AI(AI in Science) 전략 등 교육·연구 의제에 대한 입장문 및 분석서 등을 제출
- 연구비 행정 간소화, 지식의 자유, 개방성 등 구조적 정책 개선도 지속 제안

5 IGLO (RTD 사무소 비공식 협의체)



○ 개요

- 1992년 설립된 EU 회원국·준회원국 연구지원기관 브뤼셀 연락사무소 간의 네트워크로, 핵심그룹(CORE), 사무국, 주제별 워킹그룹 체계로 운영
- 회원 분담금(약 500~600유로) 중심으로 운영, 최근 연간 총 예산 약 15,800 유로
- 약 30개 회원기관이 참여, FWO(벨기에), FNRS(프랑스), KoWi(독일) 등, 한국 (KERC)도 회원으로 정기회의 및 준회원국 기관 비공개 월간회의 등 참여

○ 주요 활동

- 회원 사무소 간 정기회의, 워킹그룹 활동, 연례 네트워킹 행사를 통해 EU 연구혁신 활동 및 Erasmus+ 등을 논의하고, 회원간 정보교환·협력 촉진
- 회원 사무소 인력에 각국 호라이즌 유럽 담당자, NCP, 프로그램 위원회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지 정책 동향 및 국가별 주요 관심 현안을 공유
- EU 정책 전반 교육, 세미나, 워크숍으로 회원 기관 역량강화 지원

※ 다양한 이해관계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, 네트워크 차원의 공동 입장문·성명서는 발표하지 않음



6 LERU (유럽연구대학연맹)

o 개요

- 2002년 12개 선도 연구대학 간 파트너십으로 설립되었으며, 대학총장 총회, 이사회, 정책그룹, 사무국 체계로 운영
- 재정은 회원 대학 분담금을 중심으로 운영
- 유럽 12개국 24개 저명 연구대학이 초청을 받아 참여하며, 영향력, 연구 규모·연구비 수주 실적, 학문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정기 평가가 이루어짐
- 대표적인 회원 대학으로 옥스퍼드대(영국), 케임브리지대(영국), ETH 취리히(스위스), 소르본 대학(프랑스), KU 루벤대(벨기에) 등

o 주요 활동

- 유럽 연구중심대학의 발전과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연구·혁신, 고등교육, EU 정책 관련 성명서, 분석서, 권고서 등을 발표
- 특히 호라이즌 유럽, FP10 연구혁신 재원 등과 관련하여 활발히 공동 입장을 표명

7 Science Europe (사이언스 유럽)



o 개요

- 2011년에 설립된 비영리 국제협회로, 유럽 주요 공공 연구수행기관(RPO)과 연구지원기관(RFO)을 대표, 총회, 이사회, 사무국, 워킹그룹, 자문위원회 체계
- 회원기관 연간 분담금 기반으로 운영(회원기관들은 연간 총 약 251억 유로를 자국 내 연구 편당에 지출)
- 30개국 40개 기관이 참여, NWO(네덜란드), FWO(벨기에), SNSF(스위스) 등

o 주요 활동

- 유럽의 연구정책 조정, 연구환경 개선 및 연구의 사회·경제적 영향 확대를 위한 공동 활동 수행
- 유럽단일연구공간(ERA) 구축, FP10 정책 방향, 우크라이나 연구 생태계 지원, 글로벌 과학의제 형성에 대해 공동 입장을 정립하고 정책 제언
- 연구 우수성·다양성·포용성 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, 연구기관 대상 정책·예산 권고 및 연구환경·실행 모범사례 확산



8 The Guild (유럽 연구 중심 대학 연합)



o 개요

- 2016년 설립된 연구중심 대학연합으로, 이사회, 총회, 부회장단, 사무국, 워킹그룹, 태스크포스 체계로 운영
- 재정은 회원 대학 분담금으로 운영
- 영국 및 유럽 17개국 23개 우수 연구중심대학이 회원으로 참여. 오슬로대(노르웨이), 티빙겐대(독일), 호로닝언대(네덜란드), 옘살라대(스웨덴), 런던 킹스칼리지(영국), 워릭대(영국) 등

o 주요 활동

- 호라이즌 유럽, 교육, 영국·스위스 HE 가입, 아프리카 지식사회 강화 등의 우선순위 주제로 연구혁신 정책과 관련한 공동 입장을 발표
- 주로 FP10, Erasmus+, FP10 문샷 프로젝트, AU-EU 공동 비전 2030 등에 대한 입장문, 제안서, 성명서, 수정안 등을 제출

9 UniLion (유럽 대학 사무소 비공식 네트워크)



o 개요

- 2017년 창설된 유럽 연구중심 대학 브뤼셀 사무소 간의 비공식 네트워크로, 핵심그룹, 사무국, 워킹그룹 체계로 운영
- 네트워크 내 19개국 61개 사무소 171개 연계대학을 보유, KU루벤(벨기에), 뮌헨공대(독일), 델프트공대(네덜란드), 와세다대(일본) 등

o 주요 활동

- 호라이즌 유럽, Erasmus+, MSCA 등 EU 정책 및 연구·교육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회원간 공유하고 대학간 협력 촉진
- 호라이즌 유럽 클러스터별·필라별 브로커리지 행사 및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하여 파트너 탐색·매칭을 지원
- EU 집행위, 유럽의회 관계자, 정책 담당자 초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이해도 제고

※ 공식 로비 단체나 이해관계 대표기구는 아니며,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음